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5. 봄(Spring)

대팻밥

대패질을 한다
 결 따라 부드럽게 말려 오르는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
 당신의 대팻밥
 죽은 나무의 허기진 하루
 등 굽은 매형의 솥돌 위에 푸르게 날 선 눈물이
 대팻날을 간다
 자주 갈아 끼우는 분노의 날 선 앞니
 이빨 없는 불평은 결코 물어뜯지 못한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대팻밥을 뱉으며 가래침 같은 세상을 뱉으며
 목수는 거친 나뭇결을 탓하지 않는다



시시비비 입은 가볍고 햇바닥만 기름진 세상
 먹어도 먹어도 햇배 타령하는
 대패질은 자기착취다
 비껴온 세상의 결 따라 날마다 소멸되는 나사렛 사람
 나의 목수는 밥에서 해방된 천민이다

-김종철

시인은 이 작품에서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밥으로 대팻밥을 표현한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네 삶으로 대치된다.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비판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친다면 결국은 그것도 자기 착취일 터, 삶이 어디 밥으로만 귀결되는 것이던가. 시인은 천민이며 목수였던 나사렛 예수를 내세워 부활의 진정한 의미(해방, 회복)를 통찰해 본다.

- 임서령, 계간 「시산맥」 2013년 가을호



평화를 빕니다!

올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작년 말의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푸른 봄의 기운으로 희망을 이야기했던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한국 교회는 작년 12월 22일, 명동성당에서 ‘축성생활의 해’ 개막 미사를 올리며 한 해의 포문을 열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 한해 계속될 예정입니다. 세속적 이해관계로 점철된 요즘의 세상에서 수도자들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후원자님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 도움의 손길은 하느님의 뜻을 FMM의 카리스마를 통해 세상에 전하려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조건 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예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평화가 후원자님과 그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연피정 소식

새해가 밝으면 일년 먹을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한 연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네 번의 연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임미숙 엘렉타 수녀님(투스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수녀원)을 모시고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광주가톨릭대학교 남종기 고스마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성으로 신앙하기 - 성인됨”이라는 주제로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강의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피정하시는 수녀님들께 더 편안한 환경과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가리봉 수녀원과 부산 양정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온 마음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서로 돌보는 자매애겠지요? ^^



온 세상을 향하여...



아마존에서 온 편지

노재복 베로니카 수녀님은 작년에 페루에서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으로 파견받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도전을 만나고 계시는 수녀님의 삶을 나눕니다.

새롭게 파견받은 곳에는 26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배로 가야 하는 곳들이지만, 연료비가 없어 모든 곳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3개 공소에서만 미사가 집전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가난한 교회라니요... 그러나, 개신교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공소 건물을 짓기 위해 빙고와 티셔츠, 그리고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후원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이곳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우울증, 알콜과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사회적으로는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학교 교사들의 자질과 책임감 부족, 마약 거래를 눈감아 주는 경찰 조직 등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병원 치료가 필요해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비, 교통비 모두 큰 부담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성인들은 집안에 방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미지근한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개신교 공동체는 매우 많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제 겨우 5년이 된, 시작 단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하늘바라기집'은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소녀들을 위한 그룹홈입니다. 태백시는 탄광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 재해가 잦고 규폐증 환자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삶의 무게로 인해 희망과 동기를 찾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청소년기 아동들은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과 보건 위생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1992년, 불우한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기 위해 한 명의 수녀가 파견되었고, 1994년 1월 6일에 지역의 요청에 따라 '하늘바라기집'을 설립하고 돌봄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월 6일 설립 이후 2024년 11월까지 33명의 취약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입소했습니다. 현재 아동 7명, 초등학교 2명, 중학생 1명, 고등학교 2명, 수녀 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입소하기 전 가정폭력,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활동을 돕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또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소수의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으며, 아이들은 '하늘바라기집'에서 만 27세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종신서원 준비 프로그램 시작

종신서원을 앞두고 있는 조수정 수산나 수녀님이 순천 예수회 영성센터에서 30일 영신수련 피정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이 시기에 깊은 하느님 체험으로 한층 더 성숙한 수도자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종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사이동



매년 1월은 인사이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공동체와 사도직으로 이동하시는 수녀님들의 바쁜 걸음이 1월과 2월에 걸쳐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정든 공동체·사도직과의 아쉬운 이별을 뒤로 하고, 낯설지만 설레는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수녀님들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창립자 말씀을 아로새겨...

“저는 참된 힘이 찬란히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느님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주신 진리와 애덕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결핍으로 시들어 있으며, 애덕의 결핍으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시어 참된 힘을 다시 세우소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국민 362737-04-000395 하나 355-910035-52905

신한 140-007-059957 우체국 013078-01-001984

기업 420-017389-01-018 SC제일 453-20-00292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ecokor@daum.net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2024년 후원금 결산서 (1월~12월)

수 입		지 출	
전년이월	184,177,097	법인사무비	92,128,350
후원금수입	389,859,015	법인사업비(애공비)	16,309,260
		해외선교지원	25,883,219
		새터민	12,400,000
		이주민	79,813,150
		공부방	33,580,000
		기타사회복지	45,878,269
		양성비	87,788,327
		후원자관리	8,122,010
		이월금	186,783,527
총 계	574,036,112		574,036,112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가나스틸	김선옥	김철형	박은희	송채영	유춘성	이은미	정강호	최영남				
가정성당	김성곤	김추양	박인호	송혜경	유혜정	이은정	정경원	최영운				
가좌성당	김성미	신소희	김춘자	박재용	순교성인성당	유홍순	이은주	정경필	최옥자			
강경아	김성애	김프란체스카	박정순	임현서	신경숙	유회숙	이임수	송재용	정광진	최원단		
강대현	김성옥	김해자	박정연	신동규	윤동배	이재영	이재영	정동락	최원철			
강미현	김성원	김현숙	최지명	박주형	신문경	윤규현	이재욱	정명국	최은실			
강숙자	김성원	김현희	박준우	신승일	윤명자	윤명희	이정란	최유	최인석			
강신연	김성현	김해정	김리후	박진	신아영	윤명희	이정민	정미희	최일순			
강연호	김수경	김호성	박정식	박찬순	신용숙	윤문섭	문선미	이정숙	최재석			
강원석	김수영	김호진	박찬주	신유라	윤미숙	이정숙	데레사	정성민	최정선	윤각의		
강인숙	김숙경	김화자	박찬희	강동연	신유주	신상빈	윤보미	이정숙	수산나	정소영		
강향주	김순철	김희재	박태분	신정동	성당	윤봉수	이정원	정영숙	최종국			
검암성당	김승환	나숙희	박해필	신주선	신유경	윤순자	양정희	이정준	정옥희	최지은		
고려문화재단	김시준	나정순	박현애	신주화	윤순희	이정준	레오	정은희	최희미			
고성철	김애경	남가경	박현희	신창규	윤옥	이정하	정인순	최효순				
고승현	김애자	남보라	박화자	안드레아	윤임순	이정희	정재훈	정지호	추상식	장형숙		
고승희	김애리사	남영희	박회수	안문형	윤정미	이종욱	정진명	정진숙	추영숙	김주년		
고여숙	김영순	노미경	박효정	안미령	윤정희	이종은	정진숙	정찬영	태계남			
고은하	김영옥	노병덕	권정희	박희순	안상남	윤중화	이지아	정해경	편도열			
고재영	김영은	손연희	노봉근	밝은미래	안성민	이재익	윤한희	이지영	평화장터			
고지영	김영자	노석심	방용	안양금	윤현숙	이지인	정희	조희희	최휘선			
공창용	김영재	허갑수	노익숙	방진	안윤서	이가을	이지현	조건희	최휘선	퓨처로직스		
공해용	김영주	노정애	배수정	안자영	조진상	이갑수	이진욱	조경득	하미자			
구유희	김영준	당효준	이순희	배영주	김수영	안정임	이건희	이채화	조규진	조남섭	하옥경	
구유희	김영춘	류정	이카타	배윤숙	양기홍	이경로	이태금	조금자	한규영			
국제성경사도	김영한	마리아	고레띠	배장열	양미경	이경무	이필단	조봉례	이성호	한기훈		
권고은	김옥림	마선안	배재훈	양영자	양영석	이경석	이항남	조상위	한상국			
권순영	김옥자	마전성	당	배철희	양윤서	이경재	이해령	조석금	한소옥			
권순익	김옥주	맹영희	백미자	백미자	양윤재	이계호	이해일	조선희	한순희			
권영오	김용민	모틀초경	백성대	양종한	이광진	홍기원	이현순	조성자	한영미			
권정신	김용수	문경애	백푸드	양천애	덕회	이광희	이현준	이창석	조영주	한옥선		
권혜진	김용수	여기정	문미형	버닝하트	양현미	이금용	이혜미	조용자	한은주			
금부동	김용식	문상원	변복자	여은지	이기혁	이기혁	이혜숙	조원균	한인숙			
금창호	김용자	윤소라	문성식	변태식	연수동	성당	이남준	이홍성	조은아	한정희		
기중현	김용주	문준식	부산재	속회	연희동	성당	이동준	이화경	조인주	한진경		
기현숙	김용준	민들레	복지	사랑나	무치과	양적가족	이동현	이희주	조재호	한효정	권오현	
길광일	김원란	민병관	사랑의	손길회	오말희	이명진	인동FN	조정희	함경화			
김경순	김원숙	민정용	서덕순	서득순	서득순	오복연	인용석	조진면	함광훈			
김경재	김유정	박금난	서명자	오소영	이민서	인혜정	조현주	허재숙	장효선			
김경희	김은정	박기선	서수진	오숙자	이민희	임승욱	조혜영	허정자				
김광기	김인희	박동우	서유자	오승훈	이병철	임용환	조화숙	현경미				
김광자	김잔디	박문주	서순자	오아영	이복순	임윤섭	조희공	호원숙				
김귀선	미리암	김재식	박민주	서태진	오영희	이상문	임정태	조희무	홍경숙			
김귀선	스테파	김재욱	박병욱	송덕규	서향란	오옥형	최민귀	이상욱	임지원	홍경숙		
김나린	김정민	박병주	서혜경	오인근	미	이상호	임호	주연아	홍말숙			
김남기	김민정	김정선	서혜석	우리들	병원	이선영	장민정	지양욱	홍명숙			
김덕칠	김정숙	박선정	석남동	성당	우상혁	이선자	장민호	진성자	홍민선			
김도상	김정애	박성진	석상령	우영희	이성구	장영구	장세욱	진숙인	홍민희			
김도영	김정용	김명신	박성현	성아가	다(사)	우평균	이성남	장영구	진은주	홍성란		
김동현	김정임	박소연	성영신	우혜령	이성엽	장영문	장영문	찬미예	수님	홍세아		
김두환	김철형	김정택	어울회	박소정	성영주	윤남빈	첸시오	이성호	조봉례	장원태	천정원	홍승희
김득수	김정화	박소진	소재록	원당동	성당	이수진	장유진	청라성당	홍은숙			
김득현	김정희	박수민	손순덕	원세경	이승욱	장인용	최규범	홍익기				
김명숙	김종연	박수선	손은영	유경진	이승은	장현아	최금영	홍정임				
김미리	김주년	추영숙	박수인	손은주	유경혜	이안나	재속	프란치스	최두진	홍종걸		
김민규	김주옥	박순옥	손정래	유미경	이연실	전광희	최민숙	황경희				
김별	김준희	박순자	손주희	유병춘	이영복	전명희	최미선	황미순				
김봉연	김지선	박승민	송경수	유성재	이영애	전상은	최미양	황세원				
김봉현	김지영	박연애	송명순	비아	유수민	이영옥	전순임	최민자	황영근			
김상률	김지혜	박영희	송순이	유영재	이영혜	전순자	최신애	황윤서				
김상태	김진금	박원서	송승윤	김서현	유은분	이영희	전은희	최성순	황의택			
김셋별	김진숙	박윤실	송영빈	유은정	이옥자	전주환	최숙규	황인복				
김서애	김진식	박윤희	송영희	유주영	이성혜	이원순	전충엽	최순애	황혜숙			
김서현	김진욱	박은영	송용백	유지영	이윤신	전태수	최승호	최애란				
김선경	김채송	박은정	송정애	유채영	이윤옥	전혜향	최애란					